

신·구요소의 관계유형 분석에 의한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그 특성

A Study on Traits and Relation Type of Old and New with Design strategy of Conversion Design

노정은* / Lo, Jung-Eun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Regeneration of old buildings is one of the most imperative responses to the 21th century issue of sustainable urban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particular, creative circulation of generation which conversion means highlights the conversion as a new design method. In this study, by examining bulidings built over the last decad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old elements of existing buildings and new elements of newly required functions was analyzed and types of relationships such as 'alien insertion', 'mediate intervention', 'endogenous expansional enveloping', 'contrastive confliction' and 'over-layering' were defined. In addition, design strategies including the paradoxical curio, fore-grounding and unification were derived from each relationship. Finally, according to the relation type and design strateg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features of conversion design; ①maximization of symbolism using unfamiliarities - emphasizing futuristic or contextual symbol with intentional contrasts by preserving the work or using contemporary addition; ②time confusion using neutral space - meeting the need by harmonizing and cooperating existing elements and new elements; ③mutual emphasizing by individualization - revealing differences between old and new for an aesthetical tension; ④synchronism by constructional combination - making the one unity of different layers; ⑤ expansion by enveloping - experience of visual reverse and creation of extra space by roofing above building groups. The reconversion should be continuously researched in the future since conversion is a sustainable design method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키워드 : 신·구 요소, 관계유형, 디자인 전략, 재생, 컨버전 디자인

Keywords : Old and new elements, Relation type, Design strategy, Regeneration, Conversion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환경의 구성이라는 관점이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이후 우리는 건축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능의 저하와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재고 건축물에 대한 문제로서 최근엔 환경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의 하나로 이제까지 신축중심으로 접근하였던 건축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생과 활용의 관점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두

는 건축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체 건축프로젝트의 40%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평균적으로 건축회사 직원의 30%가 건축적 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

다른 하나의 당면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구 중의 하나가 과거를 통한 미래의 창조, 즉 재창조(regeneration)에 대한 건축 디자인의 다양한 접근 가능성의 대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컨버전디자인은 새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과정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1)Christian Schittich, Building in Existing Fabric, Birkhauser for Architecture, 2003. p.9

로이 대두되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최근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실적들이 축적되어지고 있는 컨버전디자인의 성과는 재고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적 대응이라는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디자인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다양한 컨버전디자인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신·구조소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 착목하여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방법을 분석, 도출하여 컨버전디자인의 디자인적 방법과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컨버전디자인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전환하는 개보수 작업을 의미하며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창조행위를 수행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맥락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컨버전디자인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컨버전디자인의 전략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옛것과 새로운 것의 디자인 요소들이 어떠한 관계구조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이루며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컨버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단적인 의미 파악과 현대사회에서 컨버전이 지니는 건축적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컨버전디자인을 옛것과 새로운 것의 관계 설정으로 파악하고 신·구조소간의 관계구조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컨버전디자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신·구조소간의 관계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컨버전의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디자인 전략과 관계개념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여 신·구조소의 집목관계에 따른 컨버전디자인의 전략과 그 특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컨버전의 디자인적 전략과 특성을 밝혀내는데 있어 신·구조관계의 구조 즉 '신·구조 공존'의 관계와 '신·구조 융합'의 관계라는 틀에 분석의 시각을 맞추어 신·구조 요소의 집목방법을 분석하여 컨버전디자인의 유형적인 특성과 디자인전략 및 방법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한 사례들은 최근 10년간 출간된 컨버전 관련서적²⁾들에서 소개된 컨버전디자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상기의 관점과 관련한 내용이 파악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 컨버전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2.1. 컨버전의 개념과 건축적 의미

(1) 컨버전의 일반적 개념과 건축적 관점에서의 개념

컨버전(Conversion)은 막연하고 임의적인 변화가 아닌 '무엇으로의 변화' 즉, 반드시 목적이 있는 변화를 의미한다. 즉, 어떤 목적이 변화를 이끌며 가시적인 변화 뒤에는 반드시 개념적인 전환이 자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타 분야에서는 컨버전의 의미가 주로 이념의 변절이나 종교적인 개종 등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컨버전의 의미는 컨버전이 개념적 전환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대변하여준다. 따라서 컨버전은 유사하게 사용되는 레노베이션³⁾이나 단순 용도변경⁴⁾과는 내포된 의미에 있어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컨버전의 개념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적인 관점에서 컨버전을 적용해보면 '포괄적이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 본질적인 변화, 즉 본래의 건축적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 그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현대사회에서 컨버전디자인의 건축적 의미; 생성론적 접근

건축재생의 관점은 건축을 단순히 공간성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시간성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건축을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창조는 환경과 일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순환성과 변화를 추구한다.⁵⁾ 건축을 각 시대마다 분절적으로 생산된 무기적 결과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나가는 유기적 존재로 인식하고, 성장하고 진화하며 변신 속에서 재생되는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들어있다.

"건축가가 과거의 내적 의미와 내용을 파고 들어갈 수 있을 때 과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창조적인 것이 될 수 있다"⁶⁾는

3) 현재 건축물의 재활용에 관련한 행위들을 총칭하는 레노베이션은 용도 변화에 관계없이 물리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나 건축물의 물리적 가치 혹은 용도나 기능의 존속가능성 등을 인정함으로써 가장 폭넓은 인식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복원(Restoration)과 같은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려는 행위의 경우 건축물의 가치인식은 특정 시기나 원래의 역사적 가치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용(Adaptive Reuse)과 같이 용도변화와 관련된 개념들은 물리적 측면에 따른 가치를 인식하는 동시에 사회, 환경적 맥락 또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어 변화와 유지의 범주에서 가치인식의 범위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무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고려한 재활용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재단, 1994, p.11

4) 용도변경은 그 특성상 다음의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①내부공간 계획의 변화, ②내부공간의 변화 없이 외부 파사드만의 변화, ③중축 등으로 이루어지거나 현행법상의 용도변경은 평면상의 공간구획 변화만 있을 뿐 건축물 외관의 변경과는 무관하며 외관의 변화는 대수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재인, 건축물 분류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2001, p.92

5) 김태우, 맥락적 측면에서 역사적 건축물에 현대건축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p.30

2) 1990년대부터 최근 2007년까지 출간된 문헌(참고문헌 참조)

S. Giedion의 말은 컨버전의 건축적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기존 건축물이 지닌 건축적인 조직과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역사학적 접근이나 감성적 접근이 아닌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생성론적인 접근이 컨버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건축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과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컨버전의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컨버전디자인에서의 신·구요소의 관계적 의미

(1) 관계의 개념

컨버전디자인은 항상 구(old) 요소와 신(new) 요소라는 대립되는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작업이다. 둘 중 어느 하나(either or)를 선택하여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둘 다(both)를 인식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러면서 두 요소의 관계에 어떤 질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컨버전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맥락으로 이어진 기존의 건축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창조 하는 것이다. 이미 어떠한 형태를 갖춘 과거의 구조물을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현대의 특성적 공간으로 재창조 하기위하여 옛 형태와 요구되는 기능을 위한 새로운 구축,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 어떤 질서를 찾는 것이 컨버전디자인의 실천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둘 이상의 객체가 연결, 연상, 대립, 독립 등의 상호연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란 말 그대로 구축, 구성, 질서화, 조직과 동의어이며, 사전적으로는 "조직된 전체 속에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계의 체계"라고 정의된다.

디자인을 이루는 기본원리는 임의적인 선택이나 무질서한 혼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에 의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는 다소 객관적인 구조에 의해 성립되며 신·구의 각 요소들이 모여서 전체로서의 텍스트성을 구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과 결합은 체계 안에서 각각 독자적인 가치를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인간 정신활동의 두 형태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에서 설계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소위, 선택에 의한 설계(design by choice)의 개념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⁶⁾ 컨버전디자인은 신·구의 요소들을 상호 맥락성의 관계로 보았으며 이러한 선택과 결합의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건축물'이라는 주어진 재료를 베이스로 취사의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건축을 생성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형태와 기능의 관계

건축에 있어서의 재구축 작업은 기존 건물이 갖는 물리적, 맥락적 상태들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관계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 디자인의 향방이 결정된다.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의 물리적 상태는 사용자체의 가불가를 결정짓는 요소들 즉, 안전이나 설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지며 그 이후에 디자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건축공간의 디자인은 새로운 기능이 기존의 건축에 어떻게 필적하느냐의 문제 즉 건축의 가장 전통적인 관계인 형태와 기능의 문제로 귀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축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먼저 결정되고 결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컨버전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와 구축적인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반대의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O. M.웅거스는 '건축가의 임무'란 본질상 새로운 시스템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형태학적 변형을 통해 새롭게 개선하고 재구성하는 건축적 변형과정 이라고 보았다.⁸⁾ 이러한 관점은 컨버전에서 기능과 형태의 관계를 바라보는 건축가의 태도와 시각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물학의 '변용'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 건축공간에 주어진 기능은 항상 그 건축을 지배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공간에 주어진 형태도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축을 유기체로 바라볼 때 형태와 기능 사이에는 절대적인 위계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이다.⁹⁾ 이와 같은 관점으로 컨버전에 있어서의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맥락(syntax)과 실용주의(pragmatism)의 문제¹⁰⁾, 즉 '과거의 맥락에 따른 형태에 현대에 사용가능한 기능'의 접목 관계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각 시대의 건축공간은 각기 그 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자신들의 세대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능의 합목적성이며 컨버전이 현대(contemporary)라는 시점에서 그 디자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2.3. 관계구조의 도식

일반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만나 일련의 반응을 거쳐 새로운 무엇으로 생성되는 반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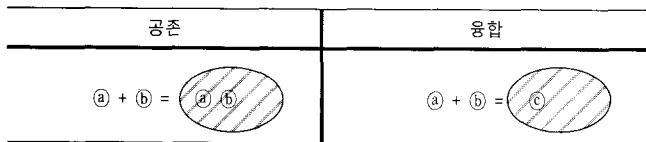
8)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사, 2003, p.46

9)현대도시건축의 논리를 현대 생물학의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기능과 형태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형태와 기능이 자의적이 되어 버리는 헤테롤로지의 단계에 이른다는 관점이다. 김병윤, 진경돈, 현대건축과 생물학의 대화, 시공사, 2000

10)건축의 경우 항상 두가지의 양극을 지니게 되는데 선택의 영역으로 구조 역학, 공학적인 절차를 거치는 "형태"의 영역과 프래그 머틱스라 할 수 있는 용법의 영역 즉 "기능" 이 있다. 김병윤, 진경돈, 현대 건축과 기호학의 대화. 시공사, 2000

6)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Fifth Edition, harvard University, 1967, p. xlv

7)천의령, 1980년대 중기 이후 현대건축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8, p.6, p.10



<그림 1> 공존과 융합의 도식(Ⓐ=기존의 요소, Ⓑ=새로운 요소, Ⓒ = 결과물)

다. 하나는 요소Ⓐ와 요소Ⓑ가 서로에게 작용하여 반응을 촉진시키지만 그 자신은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각각 존재하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공존하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 요소Ⓐ와 요소Ⓑ가 만나 반응하되 상대방과 결합하여 결과물로서 전혀 다른 Ⓒ라는 융합물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컨버전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존’과 ‘새로운’이라는 두 요소를 실험재료로 한 일종의 반응관계식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컨버전에서 ‘공존’의 관계란 신·구 요소의 관계가 보다 시각적인 변화 즉 현상학적인 반응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정신활동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현상이 변하는 방법이다. 기존건축물의 역사성이나 맥락적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축 구조물이 갖는 현대적인 특성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구조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은 건축공간의 상징성 부각, 차이의 대비, 맥락의 인식적 강조, 개별화 등이 있다.

반면에 ‘융합’은 신·구의 요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 결합하여 더 이상 개별적인 인식이나 상호간에 뚜렷한 분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어느 한쪽으로서의 구분이 모호한 다른 존재로 변화한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둘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서로 상대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새로운 요구사항에 최대한 충실하기위해 자기희생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컨버전디자인은 ‘기존의 것(old)’과 ‘새로운 것(new)’이 반응하여 서로가 다른 역사적인 켜(historical layer)를 형성함으로써 공간적 긴장감을 발생시키는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질료로서의 건축과 부여될 기능으로서의 건축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즉 관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다음 장의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컨버전디자인 사례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3. 사례분석을 통한 컨버전디자인의 관계유형과 전략적 특성

3.1. 컨버전디자인의 사례분석 개요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컨버전디자인의 사례들은 최초 건축의 설립시기에 있어 수백 혹은 수십 년의 차이가 있으며 건축이 위치한 장소와 작가, 배경이 모두 달라 이들을 동시에 아울

러 분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분석은 각 사례들의 디자인 양식이나 형태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구요소들 간의 접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내용을 전장의 ‘공존’과 ‘융합’이라는 관계적 개념에 입각하여 각각의 접목방법들을 유형화하고 그 내용을 컨버전디자인의 관계유형과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사례의 다양한 배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생략하기로 한다.

3.2. 기존요소와 새로운 요소의 접목 관계분석

컨버전이 이루어진 건축의 기존요소와 새로운 요소와의 접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컨버전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1)이질적 착생, (2)중재적 삽입, (3)내생적 포유, (4)대비적 충돌, (5)구축적 증첩의 5가지 관계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되어진 각각의 관계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질적 착생(Alien Insertion)<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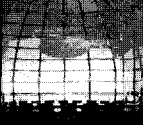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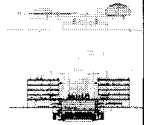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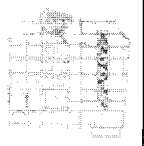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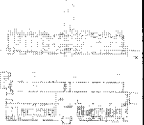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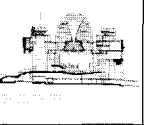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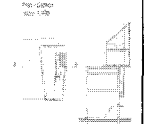
신·구의 요소가 접목하는 방법으로서 ‘착생’이란, 기존 건축에 새로운 요소가 관계를 맺게 될 때, 숙주가 되는 식물체에 이질적인 기생식물이 뿌리를 뺏어 살아가는 방법처럼, 기존의 건축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 공간의 철거나 변경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혀 새로운 공간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삽입되는 새로운 요소는 기존 건축과는 형태와 재료 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대개의 경우 유기체적인 형태 혹은 과거 건축의 재료와 구별되는 혁신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새로운 요소는 스스로 형태미를 지니는 독립된 공간이거나 기존 공간과 극적인 접목을 통해 과거와의 대비를 뚜렷이 한다. 실질적으로 구조적 해결을 위해 경량구조물 또는 프리스탠딩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질적 착생의 관계는 기존 건축이 최대한으로 보존됨으로써 본래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이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새로운 공간의 삽입으로 현대와 미래를 상징화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이태리 튜린의 “The Lingotto”는 피아트자동차 공장을 멀티문화상업 공간으로 컨버전한 사례이며 이질적 착생의 방법을 통하여 도시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한 예이다. 자동차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도시의 과거, 전성기 모더니즘의 산물인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의 그리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전시홀, 오디오리움, 호텔, 시네마컴플렉스, 오피스 등의 새로운 기능적 프로그램들을 수용하였다. 컨버전 작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공장으로 쓰였던 흔적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공간들을 배치하였으며 기존에 주행 테스트를 위한 트랙으로 쓰였던 옥상 층에 기존의 상자형태와는 대조적인 돔 형태의 공간 안에 컨퍼런스 룸과 헬기패드의 기능을 삽입하였

<표 1> 이질적 착생의 사례분석

번호	사진	도면	개요	공간	형태	요소	전략
1			더 링고토/ 튜린, 이태리/ 렌조 피아노 빌딩워크샵 /1988-97 자동차 공장→멀티문화 상업 공간	기본 구조체의 장방형 생산라인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하층에 오디오룸 설치를 통해 필요 공간을 확보함.	장방형 콘크리트건물의 옥상에 유리 와 강철을 이용하여 돔 형태의 컨퍼 런스 룸과 헬기패드를 증축함.	기존 콘크리트에 대비되는 투명성을 극대화한 유리와 강철 프레임의 사용.	역설적 원형화
2			ING & NNH 은행/ 부다페스트, 헝가리 에릭 반 에그랏 아키텍츠/ 1992-97 은행→업무공간 증축, 오피 스, 컨퍼런스룸.	기존 건물의 중정을 유리지붕으로 실내 화 한 후 고미다락방 타입의 회의실을 엮는 구조로 증축, 철계단을 매달아 극적으로 연결함. 수평적 증축을 부위는 신구건물을 레벨 과 구조면에서 직접 연결함.	기존건물의 지붕에 유기적 형태의 공간을 엮고 수평증축공간은 테크닉 컬하게 기울어진 유리 파사드로 대 비시켜 모던바로크와 모던 클래식의 형태적 충돌을 보임.	유리, 철(혁신적인 재료와 기술의 대비) 기존 재료의 세련된 복원	역설적 원형화
3			테이트 갤러리 오브 모던 아 트/ 런던, 영국 헤르조그 드리폰/ 1994-2000 발전소 → 뮤지엄	발전소 당시의 기계가 있던 거대 공간 감과 산업시설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 면서 한쪽에 치우쳐서 전시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함.	최상층에 가로형의 라이트빔으로 인 식되는 레스토랑 공간을 증축하여 보존된 굴뚝의 수직성에 대비시킴. 산업역군으로서의 과거와 미래의 문 화공간을 상징함.	기존의 어둡고 묵직한 벽돌 에 대비하여 밝고 가벼운 유리와 조명을 통해 대비시 킴.	역설적 원형화
4			더 라이트 스타그/ 베를린, 독일 노만 포스터/ 1992-1999 바이마르공화국 하원의사당 →독일 독일 국회의사당	제국시대의 기념비적 건물을 그대로 유 지한 채 지붕에 빛과 유리의 돔으로 동 일 통일 독일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 로서 관망대를 증축함.	갈대기형의 구조물과 스파이럴 램프 를 엮는 유리돔은 자연과 조절과 공 기의 순환, 실내외의 조망이라는 실 용적인 목적을 지남과 동시에 혁신 적 미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함.	제국시대의 석조건물의 질 감과 디테일과 현대적인 유 리돔을 대비함.	역설적 원형화
5			패러사이드 인 로데르담/ 로 데르담, 네덜란드 코르텍니에 & 스텔마커 문화전시관→ 회의실	문화예술 행사의 전시장 건물 옥상의 파난용 계단 코어지붕에 초경량의 이동 설치가 가능한 구조물을 부착함.	메인 빌딩의 어두운 계단과 대조적 으로 밝은 실내를 형성. 파노라마유 의 제공 및 다양한 형태의 창과 사 선이 강조되는 형태로 가벼움과 개 방감을 강조함.	옥상이라는 조건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합판과 점 합유리를 사용함. 프레임 없는 유리와 밝은 라임컬러 로 더욱 가벼운 분위기를 느끼게 함.	전경화

다. 재료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거운 콘크리트와 대비되는 가벼움과 투명성을 지닌 유리와 강철 프레임을 사용하였으며 떠 있는 듯한 '버블'구조는 공간적이고 과장된 형태를 취해, 오랜 역사를 지닌 산업시설로서의 'The Lingotto'의 독특한 장소성을 간직함과 동시에 튜린시의 새로운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ING & NNH 은행'은 기존 요소와 새로운 요소의 보다 극적인 착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19세기의 역사적 거리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 파사드의 보존과 업무공간의 증축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필요공간의 확보와 신·구 요소의 대비에 의한 미적 표현을 이루어내기 위해 코트 야드 공간의 실내 유입과 철계단으로 연결된 고미다락방 형식의 컨퍼런스룸을 유리지붕에 엮어 극적인 대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존 석재에 대비되는 유리와 철이라는 현대적 재료의 사용뿐 아니라 작가 본인이 '고래(whale)'라고 명명한 유기적 형태의 새로운 공간의 착생을 통하여 대담하고 혁신적인 오브제로써 기존 공간을 지배함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있다. 설계자인 Eric Van Egeraat는 "모던바로크(modern baroque)를 위한 직관적인 유기적 형태와 철저한 모더니즘의 병치"¹¹⁾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역사적=보수적'이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이질적인 신·구 요소를 착생관계로 새로운 형태의 공간 창출을 통하여 타파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적 삽입(intervention)<표 2>

두 번째 관계유형인 '중재적 삽입'은 기존 공간에 새로운 요소들이 관계를 맺을 때, 기존요소의 공간적 속성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용, 응용되는 관계의 방법이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형태나 공간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형태적 잠재성 등을 발굴해내고 응용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기존 공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서, 새것이기도 하고 옛것이기도 한 그런 중간적이고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이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중재적인 삽입은 새로운 요소가 기존의 요소와 충돌하거나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중재자가 되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하도록 한다. 요소들을 융축시키고 공간을 통합하기 위한 접목방법 중의 하나로 신·구의 요소들이 기교적이기 보다는 필연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디자인 요소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프랭크 게리의 LA 'Temporary Contemporary Museum'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83년 저예산으로 임시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버려진 주유소, 차고, 창고건물 등 기존건물의 공간적 속성을 그대로 현대 예술을 위한 공간을 계획한 사례이다. 현대예술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설비작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의 형태적 추가요소로는 입구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 게리는 현대 예술의 특성을 융통성으로 보고 분절되지 않은 거대 공간

11) Kenneth Powell, Architecture Reborn, Laurance King Publishing, 1999. p.60

<표 2> 중재적 삽입의 사례분석

번호	사진	도면	개요	공간	형태	요소	전략
5			호폐센터 / 디트로이트, 미국SHG incorporated/ 1994 제조공장 1930년대→공공 교육, 업무 센터, 행정오피스, 강의실, 교육실습장	제조공장 건물군을 6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기능에 맞는 규모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행정동과 만나는 부분은 지붕을 올리고 아트리움 설치함. 각 공간의 설비 등은 파위타위에 의해 관리됨.	디자인적 기교보다는 교육기관이라는 새 용도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 실용적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아트리움을 곡선형태의 미팅룸과 방문객 플랫폼 설치함.	기존 패브릭을 유지하고 칼라, 그래픽 등으로 기능을 부가함. 새로운 조명시스템으로 에너지절약.	통합화
6			뮤즈 하우스/에딘버러, 스코틀랜드 리처드 머피 아키텍츠/ 1994-95 마차 차고→단독 주택	기존 공간을 구조보강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삽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자연채광의 극대화위해 수직, 수평적으로 연속적 공간을 창출함.	외피보존 상태에서 승고의 조절을 위해 한쪽 면의 바닥을 철거 한 후 절체빔을 설치하여 현대생활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함.	기존목재와 질감있는 석재에 미니멀한 디테일의 철재, 목재, 유리, 유리를 조화를 이룸	통합화
7			가나자와 센터/ 가나자와/ 일본 이치로미즈노&가나자와플래닝리서치/ 1995-96 공장 빌딩군→공연, 전시, 공방, 스튜디오, 카페테리아	창고건물의 티포한 분위기의 유지를 위해 구조를 보강하고 일렬로 늘어선 공간을 공연장과 공방 등으로 적절하게 배치함. 기존 구조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융통성을 가진 공간으로 형성됨.	전체적인 패브릭을 유지한 가운데 기존 목재 구조체를 강조하고 외부에는 회랑설치를 통해 건물들의 선적인 연결을 이룸.	목재와 벽돌등의 기존 재료를 강조하면서 외부는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형성.	통합화
8			템퍼리 컨템퍼러리 뮤지엄/ LA, 미국 프랭크 게리, 1982-83, 1995- 창고, 차고, 주유소→2차리에 걸친 새로운 뮤지엄	기존성격 유지를 위해 동선램프설치와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공간을 위해 가변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획함. 외부 피아자 설치 후 주 전시공간은 내외부와 긴밀한 연결.	공간형태에 거의 변화 없이 기존공간을 유지한 가운데 외부캐노피와 장애자를 위한 램프를 설치함. 이동 파티션 등을 활용함.	무채색의 기존재료와 새로운 색채가 융합하는 공간.	통합화
9			루드비히 국제 예술포럼/ 아헨, 독일 엘러 & 엘러 아키텍츠/ 1988-91 우산공장→포럼, 뮤지엄, 아트스튜디오 복합, 카페, 강의실.	공정이라는 거대한 솔리드 공간에 복도 없는 대형 실내공연과 전시를 위해 바닥을 굴착 하였으며 각 모서리 타원 우산공장→포럼, 뮤지엄, 아트스튜디오 등으로 inside out 전시공간을 마련	외관 변화 없이 내부일부를 공연과 전시를 위해 철거하였으며 신구의 구별을 위한 특별한 눈에 띄는 장치나 트릭없이 융통성 있는 공간을 구성함.	기존 건물의 모더니즘의 고전적인 분위기의 색채 유지함.	통합화

안에서 매다는 유동 파티션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연을 위한 대형의 무대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에 옥외 광장을 비롯하여 스튜디오, 교육공간, 미디어스페이스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기존의 버려진 공장이나 창고가 갖는 공간적 잠재성을 디자인에 결부시키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이는 버려진 시설물에 대한 재활용의 가치를 발견한 사례로서 기존 공간의 속성을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용도의 공간을 재창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재적 삽입’의 관계유형적 특성을 갖는 또 다른 예로 버려진 창고 건물 군을 도시의 문화 활동을 위한 산실로 전환한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센터’를 들 수 있다. 일본 근대기의 창고 건물의 특징인 벽돌과 목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공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요소들이 기능적인 한계 내에서 기존 요소에 부가 되었다. 일렬로 길게 배열된 건물군의 기존 프레임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총체적인 공간으로 구획하였으며 현대의 공연, 창작활동을 위한 유연성 높은 공간을 창조해 내었다. 연속해서 배열해 있는 창고라는 기존 건물의 공간적인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통일감을 주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중적이면서 통합된 이미지의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신·구의 요소의 중재적(Intervenient) 접목 방법은 우선 건축가로 하여금 기존 공간이 가진 잠재성에 대한 탐구를 요구하여 기존 공간에 부합하는 공간적 속성을 발견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선부른 창조 보다는 기존 공간에 대한 재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소들과 기존 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융합된 이중적 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3) 내생(內生)적 포유(enveloping)<표 3>

‘내생적 포유’는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기존건물들 위에 우산처럼 펼쳐져 기존 건물들을 하나의 지붕아래 모으거나 건물들의 외부공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단위를 만듦으로써 신·구가 관계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경우 여러 건물들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동선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된다. 개개의 건물들이 기능적으로 분류되고 건물들 간의 사이공간은 또 다른 하나의 장소성을 가진 공간으로 생성되어 전체 공간이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통합된다. 특히 사이공간은 설비나 동선을 위한 기능적 공간들의 파편을 용이하게 하고 반전된 실내외 공간은 새로운 장소적 특성을 갖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 공간의 실질적인 확장효과를 얻게 된다.

‘내생적 포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 릴의 ‘르 프레노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르 프레노이’는 산업지대에 1920년대의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였던 건물들을 옛 건물과 새 건물, 예술가와 대중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일과성의 이벤트가 아닌 지역 사회의 상호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낡은 빌딩 군을 반투명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으로 덮고 전체 공간을 포위함으로써 새로운 통일된 공간을 구성하였다. 새로운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지붕을 수리하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지붕들의 사이 공간은 설비시설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기존 건물들 사이의 사이공간들은 동선뿐 아니라 사교와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실내외가 반전된 내외부의 복잡한 다용도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외부로 부터의 용이한 접근을 가능케 하

<표 3> 내생적 포유의 사례분석

번호	사진	도면	개요	공간	형태	요소	전략
10			미디어 센터/ 함부르크, 독일 에 디 엠 아키텍트/ 1983-92 선박용 프로펠러 공장→미디어 센터, 샵, 오피스, 스튜디오, 레스토랑, 플랫폼(주거)	city in the city의 개념으로 건물들 사이를 유리 지붕으로 씌움으로써 사이공간을 제공하여 가로와 광장을 형성하였으며 보다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아케이드와 샵들이 옛 건물들을 관통하도록 함. 프리스탠딩 곡선블룸형태의 신축으로 기존 사각형과 대조를 이루거나 컨테이너박스로 매달린 공간등을 설치함.	기존 패브릭의 보존하며 구조체를 남기고 철거한 후 공장내 대규모 공간 활용하도록 하는 가운데 레스토랑 비의 prow형태나 옹광로 굴뚝 등에 기존 공장의 이미지를 요소로 남김.	벽돌벽과 유리지붕, 철재구조물의 대조를 이루며 새로운 요소는 강렬한 색채를 지니고 낡은 옛것을 돕으로 새것의 컨텍스트가 되도록 함.	통합화
11			네슬레 헤드쿼터/ 마네 라 발레, 프랑스 리첸 & 로버트 아키텍츠/ 1993-96초콜렛 공장→헤드쿼터의 여러시설들	건물군들을 캠퍼스화하기 위해 사이공간에 유리아트리움을 제공하고 건물들을 상부에서 브릿지로 연결함. 건물 신축내부레이아웃은 동선으로 바꾸고 공장건물들은 2, 3층의 오피스 건물로 전환함.	상징적 건물은 보존하여 리세션, 전시공간으로 쓰임. 기존의 디테일을 보존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유리, 경량구조 벽들로 블록들을 연결함.	스테인레스 스틸, 샌드글래스, 투명유리 등의 사용과 대담한 색채로 대비를 주어 풍부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함.	통합화
12			르 프레노이/ 릴, 프랑스 버나드 추미/프레노이, 프랑스 1991-98 낡은 공장 빌딩군, 스포츠센터, →아트스튜디오 오디오리움	지붕으로 덮인 전체공간을 21세기도시공간에 비유하여 내부이며 외부인 사이공간들을 멀티 기능을 가진 동선, 사교, 상호관계의 공간으로 활용함. 통로와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성과 개방성 강조함.	기존의 건물들 위에 거대한 우산 같은 세 지붕을 덮어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형태의 콤플렉스 형성.	신축부위는 유리, 금속으로 대비. 지붕 밑의 새로운 동선은 대담한 칼라로 처리하는 등 새로운 공간의 형성을 드러냄.	통합화
13			대영박물관/ 런던, 영국 노만 포스터/ 1994-2001 외부 아트리움, 1854-57→전시공간, 입구, 복합, 오디오리움,	기존 건물의 모든 요소들을 해치지 않고 버려졌던 공간에 유리지붕을 설치하여 내부화시킴으로써 증가하는 방문객 수용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함.	실린더형의 열람실의 외부공간을 방문객들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방된 넓은 공간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카페, 북스토어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	기존의 석재 마감의 공간에 현대적인 디테일과 이중 곡면의 유리 지붕을 씌움.	통합화

였으며 강력하고 지배적인 거대한 우산효과를 지닌 구조 안에 새것과 옛것이 교류하며 통합되어지는 새로운 장소로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의 '미디어 센터'의 컨버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기존의 선박용 프로펠러 공장건물들을 오피스, 스튜디오, 레스토랑과 플랫폼거를 지닌 필름, 미디어 센터로 계획한 프로젝트이다. 거대하고 단순한 공장 건물의 폐허에 기존의 패브릭이나 시설의 흔적들을 남겨두면서 신축빌딩의 혁신적 디자인과 통합한다는 방침아래 새로운 유리 지붕을 설치하였다. 빛으로 충만한 유리지붕아래의 공간은 'city within a city'의 개념으로 새로운 가로와 광장을 형성하여 공공적 혹은 반공공적 공간의 도시적 이미지를 강화하였으며 건물들 사이의 역동적 움직임이 신·구 요소들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문화산업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내생적 포유'의 관계유형적 특성은 기존 건물의 에토스를 지닌 가운데 새로운 요소들 또한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나 서로 대립되는 신·구의 요소들이 하나의 지붕아래 통합됨으로 전혀 새로운 기능을 지닌 건축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데 있다.

(4) 대비적 충돌(confliction)<표 4>

'대비적 충돌'은 시간차에 의한 경험과 시각차이에서 야기되는 긴장감을 부여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시간차에 의한 충돌은 흔히 영화에서 보이는 몽타주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은 요소들이 보여 지는 순서에 따라 인식 속에서 충돌이 야기되는 방법으로, 신·구 공간이 접촉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적 경험과정에서 잔상에 의한 계시대비의 효과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신·구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맞붙어서 시각적 긴장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분히 근접, 마찰, 알력 등

의 개념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대비적 충돌의 관계는 신·구가 각각 독립적인 특징을 보존하면서 인식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발생되는 경우로 심리적인 갈등을 이용하는 접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건축가는 컨버전 과정을 통해 이러한 충돌의 효과를 미리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신·구 공간의 디자인 요소들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나찌 청소년 연맹본부부 '리테일 & 오피스' 건물로 컨버전한 사례는 관계유형 '대비적 충돌'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래된 역사적 픽처레스크도시인 티롤의 15세기에 지어진 석조건물의 파사드와 실내를 보존한 가운데 후면으로 횡적 증축을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증축은 단순하고 현대적인 박스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건물의 형태적 요소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선 연결에 있어서도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를 절단시킨 후 선크로 연결되도록 하여 두 공간 사이에 의도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느끼게 하였고 후면의 신축 공간에서는 외부로 연결되는 매달린 워크웨이(walkway)를 설치하여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구의 차이가 강조 되도록 하였다. 재료적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 건물의 거칠고 무거운 석재와 대비되는 매끈하고 가벼운 유리 와 금속을 사용하여 신·구 공간간의 충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대비적 충돌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트러스트 극장'은 시각차이에 의한 대비적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쓰이지 않는 교회를 활용하여 공연장으로 컨버전한 사례로서 새로운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섞여 들지 않고 뚜렷한 간격을 유지하여 두 요소가 각기 대비적으로 느껴지도록 함으로 아도 호크(ad

<표 4> 대비적 층들의 사례분석

번호	사진	도면	개요	공간	형태	요소	전략
14			리태일 & 오피스개발/ 인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피터 로렌츠/ 1990-92, 리컨버전 나찌청소년연맹본부-->상점과 업무시설	후면부에서 횡적인 증축을 하였으며 이 때 두 공간의 동선을 절단시킨 후 선린된 통로로 연결하고 후면의 증축부는 다시 케이블 브레이스 walkway로 외부로 동선을 연결하는 등 신구의 차이를 강조함.	기존건물은 기본구조와 파사드를 보존하고 실내는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후면의 증축부위는 단순한 장방향으로 미니멀하고 매끈하며 평면적인 현대적 형태를 이루도록 하여 두 공간이 대비되도록 함.	거칠고 묵직한 석재에 대비되는 매끈하고 가벼운 유리, 금속 등을 사용 하였으며 현대적 장치를 갖춘 자연채광	전경화
15			트러스트 극장/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메카노 아키텍트/ 1995-96 교회-->극장, 바	예배당과 아이, 갤러리 등의 기존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여 배치하였으며 오디오리움 좌석과 무대, 오르간은 리컨버전을 대비한 유동적인 독립 구조체의 설치를 통해 융통성 있는 공간들로 바꿈.	외파는 보존하고 내부는 아도 호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여 옛것과 새것이 섞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서로 상대를 지배하지 않음.	기존의 목재기둥 등은 본래의 색을 유지하며 중성적이나 새로운 부분은 강한 빨강 컬러의 사용함.	전경화
16			플로트 뮤지엄/ 일본 벤슨+포시스&스즈키아키텍츠/ 1992-93 창고-->뮤지엄, 스튜디오	증축부위는 구조체의 연속으로 기존 건물에 연결되었으며 메자닌 층의 신설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유리 지붕으로 빛이 충만한 공간을 형성함.	거리 쪽은 기존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그대로 연결된 증축 부위는 금속 외관과 현대적인 실내를 형성하여 전통 목재 건축과 서양 모더니즘의 결합을 보임.	유리 레이어 지붕과 철재 그리드를 통해 기존의 목재와 유리 외 철의 대비를 보임.	전경화
17			더치 디자인 인스티튜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주벤덤 크로벨 아키텍트/ 1992-94 19세기-->예술대학 전시, 라이브러리	브릿지럼 계단실의 동선코어를 삽입 이 아웃 건물과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증축함. 좁은 입면의 기존 공간에 바닥 철거와 10m길이의 새로운 구조체인 'collector'설치를 통해 수직적 변화를 일으킴.	정면 파사드를 보존하고 후면에 주변 건물을 접촉 시킴으로써 평면상의 사각 형태를 유지하며 필요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역사적 흥밋거리(굴복 등)를 보존한 가운데 파란유리브릿지와 엘리베이터등을 통해 동적이고 건축적인 분위기를 창출함.	흰벽과 조각세공목재의 재료에 유리 외 스틸로 실용적이고 밝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블루 유리블록 바닥으로 자연 채광을 제공함.	전경화
18			뮤지엄 오브 파인아트/ 릴, 프랑스 장 마크 이봄&미로 비타르/ 1990-97 뮤지엄, 전시공간, 아트리움, 연결통로, 행정오피스, 레스토랑	증축부위를 철거하여 아트리움을 복원하고 유리이케이드를 통해 개방감을 증대하였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의 외부의 증축 건물과는 지하통로로 연결시킴.	기존건물의 양식적 형태는 최대한 보존하고 이에 대비하여 얇고 긴(blade) 직사각형건물을 증축함. 벽돌 볼트 천장과 기존 갤러리를 복원하였으며 오브제적 조명을 설치함.	채광을 위해 광범위한 유리의 사용 및 독특한 인공조명으로 분위기를 새롭게 함. 신축 건물은 급진적 성향의 칼라와 패턴으로 대비를 이룸.	역설적 원형화

hoc)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예배당 안에는 유동적인 프리스탠딩 구조체로 갤러리 층 까지 설치된 메인 오디오리움, 갤러리 층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드레싱룸, 오피스, 리허설 공간을 두었으며 기존의 오르간이 제거된 공간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새로운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고정적이지 않아 미래에 있을 변화에도 대비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중성적인 배경을 유지한 가운데 목재 기둥 등은 재료 본래의 색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기존요소들은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새로운 요소들은 자극적인 칼라와 모던한 디테일 등으로 시각적인 대비를 명확히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신·구의 요소들의 시각적 대비에 의해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기존 교회의 장엄한 분위기를 유지한 가운데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대립시켜 시각적으로 풍부하고 매혹적인 극장을 제안하고 있다.

(5) 구축적 중첩(over-layering)<표 5>

‘구축적 중첩’은 각각의 요소들이 맞붙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의 영역을 공유하면서 섞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역시 각 요소들은 독자성을 지니지만, 서로 겹쳐지는 영역은 분명하게 정의하기도, 그 효과를 계획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다른 관계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층들이 끝까지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성질을 가진다면 중첩은 기존의 요소와 시간과 장소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간적으로 한 시야

에서 구축적인 디테일로 연결되어 혼합된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무의미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현대 예술의 표현기법이기도 한 혼성, 착시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신·구의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인 갈등을 구축적 디테일 등을 통해 디자인적 필연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공간을 연출해내는 접목 관계가 특징적이다.

공장을 학교로 컨버전 한 바르셀로나의 ‘라 라우나 스쿨’의 사례에 나타난 구축적 중첩의 특성을 보면, 기존 공장의 구조적 프레임 속에 새로운 공간을 계획하면서 기존 공장의 폐쇄감과 속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여 공간의 상호관입과 더불어 사회적 개방감을 추구하였다. 수직적 개방으로 빛을 끌어들이어 새롭게 계획된 공간 안에 퍼지도록 하였고 넓은 계단과 램프, 필로티 등을 실내외부에 설치하여 동선의 연결에 의한 신·구 공간의 중첩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친교와 사교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거운 석조 벽을 헐고 새로운 개구부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레이아웃과 신축되어진 공간은 융합의 관점에서 중첩되어 연결되어지고 있으며 형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신·구의 요소들이 크게 분리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학교로서의 기존건물과 새로운 거리가 겹쳐지면서 각각의 요소들이 구축적인 결합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다. ‘구축적 중첩’의 또 다른 사례인 멕시코 시티의

<표 5> 구축적 중첩의 사례분석

번호	사진	도면	개요	공간	형태	요소	전략
19			빌링스게이트 마켓/ 런던, 영국 국리처드 로저스 파트너십/ 1985-88리컨버전 시장→예술품 매장→전자제품매장 업무시설 오피스	시장으로 이용되던 높은 천정과 고의 공간에 메자닌 층을 구성하여 기존의 구조에 매달아 내었으며 상부의 무주공간의 갤러리는 트레이딩 공간으로, 작은 셀공간은 오피스와 미팅룸으로 활용하도록 함.	19세기 말의 화려한 아이언 게이트를 지닌 기존 패브릭과 실내를 보존한 가운데 추가되는 새로운 요소들은 정교한 디테일의 무테 유리 파티션과 금속 하드웨어의 사용으로 최대의 방음과 자연채광 그리고 외부와의 시각적 연계감을 지니도록 함.	조명을 이용하여 천장 구조체를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석재와 철제주물에 대비되는 유리 와 스테인레스 금속을 대비시켜 투명감 속에서 공간을 새롭게 느끼도록 함.	전경화
20			라 라우나 스쿨/ 바르셀로나, 스페인 미랄레스 & 피노 /1984-86,1993-94 공장→학교학교 제반시설	폐쇄적이고 어두웠던 공장건물에 넓은 계단과 램프를 설치하여 빛과 투명성을 제공하고 시각적, 사회적으로 개방감을 형성하여 동선의 역할 뿐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서 사교적인 장소를 제공함.	내외공간에 걸친 넓은 복도, 필터 등을 통해 공간을 창출해 냄에 있어 새로운 요소들이 기존 공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크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쓰임.	이전의 재료와 새로운 재료가 서로 크게 구분되지 않고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짐.	통합화
21			폴레지오 나치오날/ 멕시코 시티, 멕시코 데오도로 곤잘레스/ 1993-94 정부문서보관소감옥, 학교, 법정, 기숙사→ 국립학교 콤플렉스	과거의 평면을 보존하여 불분명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보이드 공간에 메인홀을 위치시키고 천장과 유리블록 바닥재로 지하층에 빛을 유입하는 방법을 통해 새롭게 느끼도록 함.	기존의 보이드 공간에 밝고 개방된 현대적인 계단실을 설치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회벽의 아치에 벽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움으로써 오래된 건물을 실내외를 달리 느낄 수 있도록 함.	전통적 회벽과 노출콘크리트와 목재의 혼합. 유리리프트, 유리블록 등 현대 요소의 대비.	통합화
22			브리타시 카운실 오피스 & 에릭슨 팰리스/ 프라하, 체코 제스티고&와일즈/ 1991-97 영국의회건물→주거, 오피스, 리테일 샵라이브러리,	쓰이지 않던 중앙 코트야드의 일부를 덮어 리셉션 및 내외부를 연결하는 동선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외부에서의 접근성 높임. 지하 라이브러리에 자연광 도입.	과거의 모방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모던디자인의 로컬전통을 보이교자 기존 공간에 유리지붕과 바닥을 도입하고 철제프레임을 사용하여 양식적인 요소를 남아있는 공간에 현대적 요소들을 구축함.	검은 철재와 유리지붕, 계단이 기존의 황색 스테이크의 플트공간과 대비를 이루어 광범위한 유리사용으로 빛과 투명성, 개방감을 높임.	전경화
23			카테드랄 뮤지엄/ 루카, 이태리 리피에트로 카를로 페리그리니/ / 1987-92 교회, 역사적 16세기 성벽의 한코너근처에 로마네스크 교회→뮤지엄, 전시공간	철저한 역사적 고증에 의한 복원과 혁신적인 새로운 요소삽입의 균형을 위해 전체공간을 바라보는 메자닌 층의 구축으로 빛과 투명성 그리고 수평, 수직의 다양한 뷰를 제공함.	경량의 프리스텐딩 철제계단과 리프트 등을 삽입 하여 가능한 현대적 환경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새 요소들을 가볍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구 요소들을 분명하게 드러냄.	폴리싱스톤바닥, 철제 레일링이 기존의 벽돌과 목재전장과 대조를 이루도록 함.	전경화

‘폴레지오 나치오날’은 정부문서 보관소에서 감옥, 수도원, 법정, 대학교 콤플렉스로 2세기에 걸쳐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물이다. 과거 수도원 단지의 평면을 보존하면서 중앙의 보이드 공간, 천장과 유리블록 바닥 등으로 어두웠던 기존의 공간을 밝게 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회벽과 노출 콘크리트 계단, 목재천장과 유리벽의 현대적 디테일에 의한 결합, 업라이트 조명에 의한 디테일의 강조 등 신·구의 요소들이 하나의 구조체로 결합된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축적 중첩의 관계유형은 새로운 불륨이나 형태적 변화를 통한 미적 추구보다는 현대적 요소와 과거의 요소를 중첩시키므로 결합과 대비의 이중적 효과를 표현하는 디자인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3.3. 컨버전을 위한 디자인적 전략

기존의 특정화된 공간적 기능적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진 건축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효 적절히 접목시키는 것이 목적인 컨버전디자인에 있어서는 전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다양한 관계유형에 따른 디자인방법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관계유형의 선택에 있어서는 본래 추구하고자 하였던 컨버전디자인의 전략적 관점에 대한 검토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개개의 사례들의 내용과 적용되어진 관계유형의 특성 등을 고찰하여 각각의 관

계유형들이 어떠한 전략적 관점에서 적용되었는지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3가지 전략적 관점을 얻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설적 원형화 전략 (paradoxical curio strategy)

컨버전은 선 프로그램 후 구축이라는 건축 행위의 일반적 순서를 뒤집음으로써 기능과 형태의 위계가 바뀌는 설계방법이다. 특히 대상 건물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조물일 경우 그 사용의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건축물 자체가 지닌 가치를 중요시 여겨 기존 건물 자체가 오히려 중요한 전시품으로 간주되어 원형 보존을 절대적 조건으로 하는 필요 최소한의 한도 안에서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보존의 개념은 자유로운 디자인 행위를 저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 원형화 전략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 자체를 하나의 건축적 프로그램을 보고 기존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존의 개념을 오히려 디자인의 출발 시점으로 보는 이러한 역설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오랜 혹은 특별한 역사를 지닌 건축의 가치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새로운 디자인적 해석에 의해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건축물과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역사가 오래된 건물들 뿐 아니라 시대적인 의미와 특성의

장소성, 즉 일정한 맥락적 의의를 가진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보존적 개념의 접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과거의 실체를 유지시킴으로써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설적 원형화 전략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역설적 원형화 전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컨버전디자인의 관계유형으로는 기존 건축을 최대한 보존함으로 본래의 건축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이질적인 새로운 공간을 삽입하여 현대와 미래를 상징화함으로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는 '이질적 작성'과 신·구가 각각 독립적인 특징을 보존하면서 인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갈등을 이용하는 관계유형인 '대비적 충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관계유형은 역설적 원형화 전략의 실천적 방법으로서 여러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설적 원형화 전략은 일견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컨버전디자인 전략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오히려 혁신적인 미래의 이미지와 역사적 맥락을 상징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컨버전디자인 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전경화 전략(foreshadowing strategy)

전경화란 언어 표현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특정한 요소만을 부각시켜 표현 자체가 내용에 앞서 독자의 관심을 끌도록 두드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선택과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어 인식적 차이를 느끼도록 의도하는 컨버전디자인 전략이다.

컨버전에 있어서의 전경화 전략은 건축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남겨진 기존건축의 요소들과 새로운 요소들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존의 건축물에 추가되는 새로운 요소들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읽힐 수 있도록 서로 평등하게 취급되며 각각 이질적인 성질을 지니도록 조합하는 것이 본 전략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전경화 전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컨버전디자인의 관계유형으로는 구축적 중첩과 대비적 충돌을 들 수 있다. 구축적 중첩은 기존의 요소와 새로운 요소들이 시간과 장소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관계유형으로서 전경화 전략의 선택과 조합을 통한 새로운 인식의 형성이라는 디자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비적 충돌은 역설적 원형화 전략에서도 그 특성의 일부를 볼 수 있으나 전경화 전략에서는 신·구 요소들 간의 강한 이질감을 통한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비적 충돌의 관계유형은 공간 내에서 의외적인 요소들을 도입, 충돌시키므로 다양한 인식적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데페이즈망 등의 현대미술의 개념들과도 유사한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질적인 재료의 선택과 신·구 요소들의 구축적인 조합과 배치는 전경화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3) 통합화 전략(unify strategy)

상기의 두 전략들이 신·구 요소들의 독립적이고 대등한 개체로서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통합화 전략은 신·구 요소들을 상호 의존하게 함으로써 공간적 재구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점차 컨버전에 대한 관심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역사적 의미에 의한 가치평가만이 아닌 다양한 가치 척도에 의한 평가로 인해 그 대상이 산업시설물인 공장이나 발전소 건물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정적인 대표성이나 미학적, 상징적 가치가 희박한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대치처럼 다루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옛것과 새것이라는 일종의 쇼케이스적인 디자인 단계를 구분할 필요 없이 기존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생성하는 전략이 컨버전디자인에 있어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또한 현대로 갈수록 심화되는 건축의 복합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하여 컨버전에도 프로그램과 기능,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들을 다루는데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 전략은 요소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건물이 지닌 공간적 속성을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관계유형인 '중재적 삽입'이나 건물자체를 오히려 하나의 단위 요소로 보아 전체적인 하나의 총체적 공간으로 생성해내는 '내생적 포유'의 관계유형을 통해서 적용되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과 새롭게 제안되는 건축 구조물 사이의 공간들이 신·구 공간들의 간격과 이음매를 없애줌으로써 필요한 기능의 확보를 공간적 통합을 위한 밀착과 응집의 공간을 생성하게 된다.

통합적 전략에서는 더 이상 신·구의 요소적 대비가 실천방법이 아니며 비록 각각의 요소들의 정체성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그 결과물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이 통합된 공간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인 것이다.

4. 결론; 컨버전의 디자인 전략과 신·구 요소들의 관계유형에 따른 표현특성

본 논문에서는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컨버전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신·구 요소의 관계개념'에 입각하여 다양한 컨버전 디자인 사례를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3장에서는 신·구 요소들의 관계구조인 '공존과 융합'의 틀로 묶어 컨버전의 디자인 전략과 신·구 요소들의 관계유형의 내용을 3가지 디자인 전략과 5가지 관계유형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상기의 분석과 고찰에서 얻어진 전략과 관계유형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컨버전디자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6>

(1) 이질감에 의한 상징성의 극대화; ①

컨버전디자인의 표현은 이질적인 두 요소의 대비로 인해 미

<표 6> 디자인 전략과 관계유형의 상관특성

		이질적 착생	중재적 삽입	내생적 포유	대비적 충돌	구축적 중첩
공존	역설적 원형화	①			①	
	전경화				③	④
융합	통합화		②	②,⑤		④

래나 주변 맥락에 대한 강한 상징성을 드러내는 특성이 강하며, 이러한 특성은 주로 이질적 착생과 대비적 충돌의 관계유형으로 나타난다. 이질적 착생의 관계를 통해 의도적인 보존이나 복원으로 그 역사성을 부각시키며 전체 공간에 비해 가볍고 매끈한 미래적 형태의 새로운 요소들이 기존의 건축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거나 역사적인 외관의 건축에 현대적인 실내나 중층부위의 직간접적 연결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비의 충돌현상에 의해 건축공간이 지닌 상징적 컨텍스트를 강조하여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2) 중성적 공간형성으로 인한 시간적 융합; ②

역사적, 건축적인 가치보다는 건물 자체의 물리적 가치를 지닌 산업시설이나 창고 등의 대형 공간을 컨버전 할 때 활용되어지는 디자인방법으로 통합화 전략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기존 공간의 물리적 속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용도에 적절히 적용하는 디자인방법이며, 어떤 기교적인 장치나 트릭을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 공간의 볼륨 형태나 분위기가 새로운 요소들과 대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옛것과 새것의 협력과 조화에 의하여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만족 시키는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표현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3) 개별화를 통한 상호 강조; ③

미적 긴장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을 대비적으로 충돌시킴으로써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전경화와 역설적 원형화 전략에서 유사하게 사용된다. 전경화에서는 신·구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요소적이고 독립적으로 쓰인 충돌의 관계라면 역설적 원형화는 어느 한 쪽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4) 구축적 결합에 의한 동시성; ④

시각적으로 대비되는 요소들이 구축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느껴지는 이색적인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통합화 전략에서 많이 보이는 방법으로서 보다 분절적으로 융합하는 중첩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한 공간 안에서 신·구가 보다 요소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며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구 결합의 디테일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5) 포유(包有)관계에 의한 공간의 확장; ⑤

여러 개의 건물들을 ‘한 지붕아래’ 하나의 테마를 통해 확실히

한 질서로 통합시키는 방법이다. 건물들 간의 잉여 공간이 생성되어 사실상 동일한 부지 안에서 활용가능한 공간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 필요한 기능들을 수용할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실외공간의 실내화가 주는 시각적 반전의 경험과 잉여 공간의 활용으로 인한 거리와 광장, 동선 등의 도시적 개념의 발생은 현대사회의 복합화를 반영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상에서 밝혀진 신·구 요소들의 관계유형과 디자인 전략, 관계유형과 디자인 전략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도출된 컨버전 디자인의 특성은 향후 다양한 컨버전 프로젝트의 성격과 여건에 따른 적절한 전략과 방법의 선정에 유용한 지표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Christian Schittich, *Building in Existing Fabric*, Birkhauser for Architecture, 2003
2. Kenneth Powell, *Architecture Reborn*, Calmann & king Ltd. 1999
3. James Douglas, *Building Adaptation*, Butterworth Heinmann, 2003
4. Dorothy A. Henehan, R. Dodge Woodson and Stephen Culbert, *Building Change-of-Use*, Mc Graw Hill, 2004
5. Vinny Lee, *Recycled Spaces*, Soma, 2000
6. Pierre Thiebaut, *Old Buildings Looking for New Use*, 2007
7. Donald Friedman and nathaniel Oppenheimer, *The Design of Renovations*, 1997
8. Nora Richter Greer, *Architecture Transformed*, Rockport Publishers, LTD. 1998
9. Sherban Cantacuzino, *Rearchitecture*, Abbeville Press, 1989
10. 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사, 2003
11. 이정국·진경돈,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2000
12. M.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시각과 언어, 1998
13. David R. Dibner & Amy Dibner-Dunlap, *하체명 역, 건축 증개축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5
14. 베르나르드 루펜 외 4인, *건축디자인과 분석*, 도서출판 국제, 2000
15. 김인·박수진 편, *도시해석, 주식회사 푸른길*, 2006
16. 국토연구원, *현대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아카데미, 2005
17. 김병운·진경돈 편, *현대건축과 생물학의 대화*, 시공사, 2000
18. 김병운·진경돈 편, *현대건축과 기호학과의 대화*, 시공사, 2003
19. 천의령, *1980년대 중기 이후 현대건축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1998
20. 이상훈, *역사적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에 나타나는 새로운 속성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6
21. 전한나, *현대공간 재생의 개념확장과 표현요소로써 디자인 의미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22. 최무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고려한 재활용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재단, 1994
23. 이재인, *건축물 분류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2001
24. 김태우, *맥락적 측면에서 역사적 건축물에 현대건축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9

<접수 : 2007. 10. 31>